



[라벨링] 美 법원, ‘그뤼에르 치즈’ 용어 일반화

– 미국산에도 ‘그뤼에르’ 명칭 표기 허용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에서 생산된 ‘그뤼에르’ 치즈에 해당 명칭 표기를 허용키로 했다.

그뤼에르 치즈의 명칭은 스위스 지역에서 명명된 것으로 지난 2011년 유럽연합으로부터 원산지 보호 명칭인 AOP 인증을 받은바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 생산된 그뤼에르 치즈는 지리적 표시보호(PGI)를 획득해 스위스산과 혼동되지 않는 선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스위스 및 프랑스 치즈생산자 컨소시엄이 미국 상표심사·항소위원회(TTAB)에 신청한 상표권 보호 승인이 거절됨에 따라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연방법원은 소비자들이 그뤼에르를 원산지가 아닌 치즈의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생산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표기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미국 낙농업계는 환영하고 있는 한편 컨소시엄 측은 그뤼에르 이름을 일반화 시킬 경우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출처 : dairyreporter.com / ksat.com, 1월 10일자 >

[영양건강] 동물성 식품 섭취 감소로 필수 영양소 결핍 주의

– 특히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뼈 건강 및 면역력 약화 초래



식물성 대체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성 식품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사가 필수 영양소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가 경고하고 나섰다.

영국 리딩대, 식품표준국 등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유제품 및 육류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위주 식단으로 전환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필수 영양소 결핍으로 치아와 뼈 건강은 물론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 이미 철, 아연, 칼슘, 요오드 등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식물성 대체식품 섭취가 늘고 있어 면역력 강화와 뼈 성장은 물론 노화 관련 질병 예방을 위해 주요 영양소 공급원인 우유 및 육류 섭취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출처 : inews.co.uk, 1월 10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